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의 상관성 연구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이희성*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구속의 메타 내러티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다윗 왕권의 설립과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언약들을 회고하면서 새언약을 바라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¹⁾ 하지만 시편 89편을 이사야 55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과의 상관성 가운데 논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동안 시편과 이사야사 사이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적 전제를 가지고 접근되었다.²⁾ 역사 비평적 방법론을 따라 여러 학자들은 시편과 이사야 40-55장

* 총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김정우, “시편 89편의 성경신학적 기여 – 무조건적 언약 속에 있는 조건성의 수수께끼,” 「신학지남」 57 (1990), 11-53; 김정우, “시편 89편의 정경적 해석,” 「신학지남」 57 (1990), 6-32; 김정우, “시편 89:29-38 주석: 무조건적 언약의 현장,” 「신학지남」 58 (1991), 8-31; 김희권,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 「구약논단」 28 (2008), 107-127;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32 (2009), 83-110.
- 2) 여러 학자들은 특히 이사야 40-66장과 시편의 형태와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Edgar. W. Conrad, “Second Isaiah and the Priestly Oracle of Salvation,” *ZAW* 93 (1981), 234-246; Conrad, “The ‘Fear Not’ Oracles in Second Isaiah,” *VT* 34 (1984), 129-152; R. F. Melugin, *The Formation of Isaiah 40-55*, BZAW 141 (Berlin: W. de Gruyter, 1976). 참조. Ronald E. Clements, “Psalm 72 and Isaiah 40-66: A Study in Tradition,” *PRS* 28 (2001), 333-341.

사이의 역사, 장르, 삶의 정황, 문학적 상관성 등을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두 본문의 역사적 정황이나 삶의 정황을 가정하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논의하였다.

최근에는 본문의 형성과정, 거시적 문학적 구조 등을 살피면서 선지서와 시편에 대한 상관성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³⁾ 사실 이와 같은 방법론은 선지서와 시편 연구에 여러 유익한 안목들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지서와 시편은 하나님의 신적인 메시지를 언어로 표현한 신학적인 책임을 감안할 때 신학적이며 언어적인 관점으로 두 본문의 상관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신학적 전통인 다윗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 두 본문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두 본문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밟을 것이다.

첫째, 시편 89편의 전체 의미의 구조 안에 나타난 다윗 언약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하 7장과의 언어적 주제적 상관성을 먼저 살피고 시편 89편에 소개된 다윗 언약의 조건적이며 무조건적인 속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둘째, 이사야 55장 전체의 의미론적 구조를 살피고 그 안에서 다윗 언약의 속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었던 יְהוָה יְהוָה 의 해석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 다윗 언약의 속성을 이사야서의 좀 더 넓은 문학적 문맥 안에서 살펴본다.

셋째,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에 나타난 언약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다루고 상호 관련성을 다윗 언약의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3) Jerome Creach, "The Shape of Book Four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Second Isaiah," *JOT* 80 (1998), 68.

1.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언약

시편 89편은 찬양, 신탁, 탄식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가 조합을 이루며 다윗 언약이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 되면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편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아마도 다윗 왕조가 무너진 후인 포로기 또는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⁴⁾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언약을 살피기 전에 본문의 주제 흐름에 따른 의미론적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1 시편 89편의 의미론적 구조

- A. 여호와와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는 이유 (1-4절)
 - a. 창조에 나타난 주님의 성실과 인자를 찬양 (1-2절)
 - b.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를 찬양 (3-4절)
- B.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 (5-18절)
 - a.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 (5-8절)
 - b.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을 찬양 (9-14절)
 - c. 언약 공동체의 찬양 (15-18절)
- C.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19-37절)
 - a. 다윗을 선택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 (19-29절)
 - b. 언약 파기에 대한 징계 (30-32절)
 - c. 다윗 언약의 영원성 (33-37절)

4) 김정우, 『시편주석 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749. 시편 89편의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는 포로전기, 포로기, 포로 후기,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대가 제시되었으나 본문 안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본문의 최종 구성 형식과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인 포로기 또는 포로 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D. 다윗 언약 파기에 대한 탄식 (38-52절)
 - a. 언약을 파기하신 하나님 (38-45절)
 - b.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탄식 (46-48절)
 - c. 언약 파기에 대한 탄식 기도 (49-51절)

시편 89편은 크게 1-4절(A), 5-18절(B), 19-37절(C), 38-52절(D)와 같이 네 부분으로 나뉜다. 서론 부분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결심으로 시편의 포문을 연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1,2절) 그리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헌신이다(3,4절). 이 두 가지 주제가 어휘적 평행구(lexical parallelism)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윗 언약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 만큼이나 견고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⁵⁾

서론에서 소개된 이 두 주제들은 시편 89편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 5-18절(B)과 19-37절(C)에서 더욱 상세하게 발전되고 있다. 5-18절(B)에서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신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5-8절), 창조에 대한 통치와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창조주이시다(9-14절). 이와 같은 창조와 절대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백성들의 찬양이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15-18절).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 때문이며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15-18절에서는 백성들의 왕(מֶלֶךְ)에 대한 소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19절 이후부터 소개되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주제를 연결시켜 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⁶⁾

5) 김정우, 『시편주석 II』, 747. עוֹלָם (1,2절) // עוֹלָם (4절), וְדָר וְדָר (2절) // וְדָר (4절), וְיָגֵן (2절) // בְּנֵיתִי (4절). 참조 Adel Berlin,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이희성 역 (서울: 그리스, 2010).

6) John Goldingay, *Psalms 42-89*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674.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다윗에 대한 헌신이란 점에서 보면 15-18절은 1-4절과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19-37절(C)은 다윗 언약과 그 내용을 일인칭 직접 화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어진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이면서 풍부하게 보여준다. 이 단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a. 다윗과 언약을 맺고 보호하시는 하나님(19-29절), b. 언약 파기에 대한 징계 (30-32절), c. 다윗 언약의 영원성 (33-37절).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 그리고 다윗 언약의 영원성이란 주제가 언약 파기에 대한 징계에 관한 내용을 감싸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신실함에 대한 강조가 38-52절(D)에서 예상치 않게 갑자기 반전을 이룬다. 시편 89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소개된 내용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⁷⁾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깨어질 수 없는 다윗 언약의 파기에 대한 탄식이다. 그런데 다윗 언약을 파기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⁸⁾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미워하시고 욕되게 하셨다(38-45절). 이는 단순히 회초리로 불순종을 다스리는 징계의 차원을 넘어서는 강한 행동이다. 시편 기자를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 인생 연한의 허무함을 개탄하고 있다(46-48절). 그의 이러한 탄식은 다시금 다윗 언약에 호소하는 탄원기도로 나아가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찬양, 신탁, 탄신과 탄원이라는 주제로 전체가 통일성을 이루는 의미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1.2. 시편 89편의 다윗 언약의 속성

1.2.1 사무엘하 7장의 기반

7) 이전의 다윗 언약의 확고함과 현재의 다윗 언약 파기의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들(서로 상반된 대조의 문맥 가운데 사용되었다. מְשִׁיחַ (20절//38, 51절), דָּסָהּ מוֹנָה (1,2,5,8,15,24,28,33절 // 49절), כְּרִית (3절//39절), עָבַד (3절//39,50절).

8) 시편 기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אֱתָהּ (그러나 당신)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다.

시편 89편에서 소개되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언어적이며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새롭고 더욱 풍성하게 전개시킨다. 사무엘하 7장과 시편 89편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주목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주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소개하는 다윗 언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다. (1) 하나님의 종 다윗 선택(8절), (2)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원수 진멸(8절), 위대한 이름(9절), 원수로부터 보호(10, 11절 상), (3) 다윗의 후손들을 통한 영원한 왕조 보장(11절 -13절, 16절), (4) 불순종에 대한 징계(14, 15절).

이와 같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요소들은 시편 89편에서 다양한 용어들과 여러 풍성한 주제들과 결합되어 강화되고 확장되어 소개되고 있다.

첫째, 다윗에 대한 호칭이 단지 사무엘하 7:8의 “내 종 다윗”(דָּוִד אֲבוֹנִי), “주권자”(מֶלֶךְ)에서 시편 89편에서는 “내가 택한자, 종”(אֲבוֹנִי אֲבוֹנִי, 3절), “용사”(אֲבוֹנִי, 19절), “장자”(אֲבוֹנִי, 27절), “지존자”(אֲבוֹנִי, 27절), “기름 부음 받은 자”(אֲבוֹנִי, 38절) 등으로 묘사하며 다윗을 이상적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⁹⁾

둘째, 시편 89편에서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현신을 “인자”(חַסְדֵּךְ)와 “성실”(אֱמוּנָתְךָ)이란 용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 한다 (1, 2, 5, 8, 14, 24, 28, 33, 49절). 특히 후자의 용어는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시편 기사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이 용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 관계의 확실성을 묘사한다.¹⁰⁾

셋째, 시편 89편에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언약”

9) Jung-Woo, Kim., “Psalm 89: Its Biblical-Theological Contribution to the Presence of Law within the Unconditional Covenant.”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89), 324.

10) 참고 Richard S. Hess, “חַסְדֵּךְ,”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I. ed., Willem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211-218.

(תַּרְגּוּ, 3, 39절)이란 용어를 통해 하나님과 다윗과 사이의 관계를 언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맹세”(עֲבַשׁ, 35, 49절)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하여 다윗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는 언약의 확실성과 무조건성을 역설한다. 넷째,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가 견고히 서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의 날”(יְמֵי שָׁמַיִם, 29절), “해”(שֶׁמֶשׁ, 36절), “궁창의 확실한 증인(עֵד)인 달 (כֶּלֶךְ, 37절)”을 직유법으로 사용하여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에는 다윗 언약의 파기란 주제가 소개된다. 언약 파기의 흑독함을 나타내기 위해 “물리침, 거절함”(נָגַף, סָרַח, 38절), “욕되게 함”(לָלַח, 39절), “수치”(חִשְׁבֹּן, 45절)와 같은 단어들도 동원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윗 언약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한 역설적 상실감을 강화시킨다.¹¹⁾ 시편 89편은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소개된 다윗 언약에 대한 이상을 여러 용어들을 통하여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다윗 언약 파기라는 비판적 내용을 역설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시편기지는 다시 한 번 영원불변한 다윗 언약에 호소하며 다윗 언약의 종말론적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

1.2.2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시편 89편에 소개된 다윗 언약의 속성은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과 비견될 만큼 확고하고 영원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서는 다윗 언약을 파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을 왜 감추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김정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조건성과 무조건성을 설명하는 그룹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며 그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¹²⁾

11) Craig C. Broyles, *Psalm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357.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 사이에는 절대적인 구별 보다는 유동적인 구별이 더 합리적이고, 율법 조항의 존재 여부가 이 두 형태의 언약을 찾는 데 있어서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율법의 기능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을 조건성과 무조건성으로 절대적으로 양분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구별하도록 촉구한다. 문제는 언약의 기능을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느냐에 있다고 한다. 무조건적인 언약의 차원은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에 자신의 약속과 맹세로 헌신을 한다는 점을 강화시키고, 조건적인 언약의 모델은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의무와 율법 준수에 대한 맹세로 헌신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편 89편에 소개된 다윗 언약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바와 같이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의 영원성과 무조건성을 여러 가지 용어들과 구조를 통하여 역설하고 있다. 다윗 언약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는 19-29절(C)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시될 수 있다.

- a. 다윗 선택과 다윗 언약의 영원성 (19-29절)
 - b. 다윗 언약의 조건성 (30-32절)
 - a'(c). 다윗 언약의 영원성 (33-37절)

시편 89편에서는 언약의 지속성과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 “영원히”(עֹלָם)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2, 3, 5, 29, 37, 38, 53).

12) Kim Jung-Woo, “Psalm 89: Its Biblical-Theological Contribution of the Presence of Law within the Unconditional Covenant,” 331-350. 첫째,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조건성을 무조건적 언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는 자들 (존 머레이, 팔머 로멧슨, 카이저와 맥콕스키), 둘째, 언약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의무를 서로 대치시키는 자들 (노엘 프리드만, 존 브라이트), 셋째, 언약의 다양성 가운데 조건적이고 무조건적인 요소를 서로 대치시키고 이 차이를 성경의 다른 편집자에게 돌리는 자들이다 (마틴 노트, 폰 라드, 프랭크 크로스, 모세 와인펠트, 벨슨).

주님은 다윗을 위하여 그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28, 29절). 또한 다윗 언약의 무조건적인 지속성을 보증하기 위해 하늘의 날, 해, 달과 같은 불변하는 창조물을 a와 a' 단락에서 은유적으로 등장시킨다. 다윗 언약의 영원성과 무조건적인 지속성의 대칭적 구조 안에 다윗 언약의 조건성을 드러내는 b 단락이 그 중심에 존재한다. b 단락에서 제시하는 다윗 언약의 조건성은 “내 법” (תּוֹרָה), “내 규례” (צְבָאוֹת), “내 율례”(תּוֹרָה), “내 계명”(מִצְוָה)과 같은 신명기적 용어를 통해 묘사된다(30, 31절).

이와 같은 용어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모세 언약에서 소개된 율법들(특히 신 17:18-20의 왕의 규례)을 지키고 순종해야 언약적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언약적 의무는 다윗의 후손들이 불순종을 통한 언약의 파기 가능성을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록 언약에 참여하는 다윗의 후손들이 언약을 파기할 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다윗 언약을 깨뜨리거나 언약적 헌신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33-37절).

이처럼 다윗 언약의 무조건성 안에는 조건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다윗의 후손들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윗 언약에서 이 두 지평의 요소를 결코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¹³⁾ 그렇다면 다윗 언약의 무조건성 안에서의 조건성을 기반으로 38-52절(D)의 다윗 언약 파기에 대한 시편 기자의 탄식과 탄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첫째, 다윗 언약은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거나 그 언약에 참여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¹⁴⁾ 언약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언약적 조건을 충족시킬 때 그에게 축복이 보장된다. 하지만 만약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그 언약의 조건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

13) Kim Jung-Woo, “Psalms 89: Its Biblical-Theological Contribution of the Presence of Law within the Unconditional Covenant”, 378.

14) Palmer O.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250-252.

둘째, 다윗 언약의 불변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언약의 최종적 목적은 반드시 실현된다. 사실 다윗 왕조는 시편 기자의 탄식과 같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더불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종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영원한 다윗 언약에 호소하며 탄원한다. 과연 그의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과 다윗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편은 시편 89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편 89편 후미에서 제기된 탄식과 신학적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 이후에 나오는 시편 4권과 5권에서 소개되고 있다. 와이브레이(Norman Whybray)는 시편 4권(90-106편)이 다윗 언약의 실패와 그로 인하여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함축적 의미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다.¹⁵⁾ 시편 4권에 속한 여러 시편들은 다윗 왕조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심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시편 110편은 다윗 언약 사상을 기반으로 메시아적 왕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¹⁶⁾ 결국 다윗 왕조의 언약을 영원히 계승하는 일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최종 성취를 바라보게 된다.¹⁷⁾ 다윗 언약은 결코 파기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2. 이사야 55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

-
- 15) Norman Whybray,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2. 시편 89편과 시편 4권과 5권 사이의 신학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여라. Gerald H. Wilson,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J. Clinton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Sheffield: JSOT Press, 1993), 72-82; Gerald H. Wilson, "Evidence of Editorial Divisions in the Hebrew Psalter," *VT* 34 (1984), 336-352; 문은미, "시편의 구성적 접근을 통한 시편 제 4권의 이해," 『Canon&Culture』 3 (2009), 177- 204.
- 16) Kim Jin Kyu, "From a Royal Psalm to an Eschatological Psalm: The Changing Genre of Ps 110 in the Context of the Psalter," *KRJ* 19 (2011), 28-30.
- 17)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253-57.

이사야 55장은 포로기 백성들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소개하는 이사야 40-55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¹⁸⁾ 본장에는 초청, 약속, 구원선포와 같은 다양한 장르가 다윗 언약이라는 주제와 아울러 전개되고 있다. 이사야 55장은 전체 주제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2.1. 이사야 55장의 의미론적 구조

- A. 순종의 삶으로 초청과 약속 (1-5절)
 - a. 나와서 들으라 (1-3a절)
 - b.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3b-5절)
- B. 회개의 삶으로 초청과 약속 (6-13절)
 - a. 여호와의를 찾고 부르고 그에게 돌아오라 (6, 7절)
 - b. 돌이키는 이유: 여호와의 생각, 헛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 (8-11절)
 - c. 돌이키는 자들을 위한 약속과 표징 (12, 13절)

이사야 55장은 크게 1-5절(A)과 6-13절(B)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1-5절은 화자인 여호와의 일인칭 직접 화법을 통해 백성들을 순종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 그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제공되는 은혜의 약속으로 부르고 있다. 초대의 절실함과 긴박성은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1번의 명령형에 의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1-3a).¹⁹⁾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18) 넓은 문맥적 차원에서 보면 이사야 40장은 55장과 서로 수미 쌍팔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창조세계의 변화란 주제로 이사야 40:3-5과 55:12,13,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과 말씀의 영원성이란 주제로 40:6-8과 55:8-11이 서로 상관성을 이루고 있다. 사 40:27-31은 포로기 백성들의 탄식을 소개하고 있고 40:1은 하나님의 위로로 메시지의 포문을 열고 있다.

19) 1-3a절에서만 명령형(imperative) 형태 동사 **נָא** (나아오라, x4), **וּשְׁמַע** (사라, x2),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고 영혼이 살 것임을 약속한다. 나아가 3b에서는 순종하는 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 3b-5절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인 다윗 언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²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מַחְנֵה דָּוִד הַיָּשָׁר)가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되며 이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달려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이사야 55장의 전반부인 1-5절(A)은 순종의 삶으로 초청과 그에 대한 약속이 주된 주제이며 이와 유사한 주제가 다시 한 번 후반부인 6-13절(B)에서 반복 되고 있다. B 단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a. 여호와의 찾고 부르며 그에게 나아오라는 초청(6,7절), b. 여호와께 돌이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8-11절), c.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A 단락의 서두(1-3a)에서와 같이 B 단락을 시작하는 6, 7절에서도 초청의 다급성과 절실함이 반복적인 명령형과 지시형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²¹⁾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회개로 구체화시키면서 용서라는 주제를 새롭게 소개한다(7절). 8-11절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²²⁾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³⁾ 결론부인 12, 13절은

כָּלֵל (먹으라, x2), שָׁמַע (들으라, x2), וְשָׂמַע (귀를 기울이라) 가 11번이나 사용되었다.

- 20) 4,5절은 다윗 언약을 소개하면서 청중들의 관심과 집중을 끌기 위해 הָ (보라)를 반복해서 문두에 사용하고 있다.
- 21) 6,7절에서 명령형으로 사용된 동사는 שָׁמַע (찾으라), בָּרוּךְ (부르라), 지시형으로는 사용된 동사는 בָּרוּךְ (버려라), שָׁמַע (돌아오라)가 있다.
- 22) 8-11절에는 이유를 설명하는 כִּי (왜냐하면) 라는 접속사가 4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참조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98), 434. 8-11절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כִּי를 통해서 6,7절과 연결이 되어있다.
- 23)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백성들의 길이 서로 다름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과 표징을 자연 변화와 갱신으로 소개한다. 이처럼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회개의 삶으로 초청 그리고 순종에 대한 약속이란 주제가 반복되는 단락을 통해 분명한 패턴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2. 이사야 55장의 다윗 언약의 속성

다윗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사야 55장은 시편 89편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사야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관점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사야 55장 3-5절은 다윗 언약의 중요성, 다윗의 역할, 다윗 언약의 수혜자에 대해 각각 소개하고 있다.

2.2.1. 영원한 다윗 언약

이사야 55:3, 4에 나타난 용어들인 “영원한”(עֹלָם), “다윗”(דָּוִד), “은혜”(חֶסֶד), “인도자”(מְנַחֵם)는 사무엘하 7장에서 소개된 다윗 언약에 관한 주제를 언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삼하 7:8,13,15,16). 이사야 55장에 소개되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기반을 두고 전개시킴이 분명하다. 다윗 언약을 소개하는 3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구절이다. 먼저 “영원한 언약”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3절에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나아와 듣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עֹלָם תְּכַוְּנֶנּוּ)을 약속하셨다. “영원한 언약”이란 표현은 구약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에 단어 자체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²⁴⁾ 오스왈트(John Oswalt)는 “영원한 언

평행구를 통해 소개한다. מְנַחֵם (내 생각) // מְנַחֵם (너희 생각), נָחַם (내 길) // נָחַם (너희 길).

24) “영원한 언약”이란 표현은 창 9:16; 17:7,13,19; 출 31:16; 레 24:8; 민 18:19; 삼하

약'이 조건적인 모세 언약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하나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²⁵⁾ 구문론적으로 보면 3절의 “영원한 언약”은 다음에 나오는 어구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מְנוּחָהּ וְיָמֵי דָוִד)와 의미론적 평행구(semantic parallelism)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그 의미가 명확화 된다.²⁶⁾

선지자는 평행구를 통해 “영원한 언약”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임을 소개하면서 그 언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실 인접 문맥에서 보면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자비의 언약을 소개하였다. 54:9, 10에서 노아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יְרֵכָה וְיִשְׁוֹ)이 이스라엘에게 결코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고 55장에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는 이사야 40-55장을 결론내리며 회복을 위한 언약적 약속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점 문맥인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 언약과 관련하여 영원한(אָלְמִיּוֹת)이란 용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다윗 언약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삼하 7:13,16). 선지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윗 언약의 중요성 및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소개하는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다윗 언약과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된 주제는 יָמֵי דָוִד을 주격 소유격(subjective genitive) 아니면 목적격 소유격(objective genitive)으로 해석할 지에 관한 것이었다(사 55:3; 대하 6:42).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다윗에 의한(by) 충성으로 번역이 될 수 있고 목적격 소유격으로 볼 경우에는 ‘다윗을 위한(for) 은혜’로 번역이 될 수 있다. 전자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23:5; 대상 16:17; 시 105:10; 사 24:5; 61:8; 렘 32:40; 50:5; 겔 16:60; 37:26에 나타나고 있다.

25)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437.

26) 아델 벌린,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이희성 역 (서울: 그리스, 2012), 172.

דָּוִד וְיִשְׂרָאֵל을 주격 소유격(다윗에 의한 충성)으로 번역하여 “영원한 언약”(עוֹלָם עֲבָדָה) 또는 새 언약과 대조시키고 있다.²⁷⁾ 다윗에 의한 충성의 내용이 4절에서 소개되고 영원한 언약은 5절에서 소개되어 서로 대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새로운 영원한 언약은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초월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점을 강조한다.²⁸⁾ 이 같은 해석은 본문이 말하는 다윗 또는 다윗 언약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슨(Williamson)은 고대 사본, 문법적 특성, 문맥에 의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דָּוִד וְיִשְׂרָאֵל를 목적격적 소유격(“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²⁹⁾

사실 본문의 의도는 다윗 언약과 대조 시켜 새언약이나 영원한 언약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즉 다윗 언약의 중요한 위치와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다윗 언약은 유효하고 지속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약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영원한 언약”의 의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27) 일반적인 견해는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보았으나 이에 도전하여 주격적 소유격을 주장한 학자들은 Caquot, Beuken, Gentry 가 있다. 참조 A. Caquot, “Les ‘Graces de David,’ A Propos d’Isaie 55/3b,” *Sem* 15 (1965), 45-59; W. A. M. Beuken, “Isa. 55:3-5: The Reinterpretation of David,” *BFTT* 35 (1974), 49-64; Peter J. Gentry, “Rethinking the ‘sure mercies of David’ in Isaiah 55:3,” *WTJ* 69 (2007), 279-304.

28) Beuken, “Isa. 55:3-5: The Reinterpretation of David,” *BFTT* 35 (1974), 64. 뷔켄은 다윗이 보여주는 충성이 4a절에서 소개되어 있고 영원한 언약은 5절에서 소개되어 있다고 말한다. 다윗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윗의 충성과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언약’ 사이에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29) H. G. M. Williamson, “‘The Sure Mercies of David’: Subjective or Objective Genitive?,” *JSS* 23 (1978), 31-49. 윌리엄슨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시한다. LXX은 τὰ ὅσια Δαυὶδ τὰ πιστά (the sure mercies of David)으로 소개하고, 문법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단수 דָּוִד가 목적격으로 사용된 본문인 시 5:8; 스 7:28; 9:9; 느 13:22b, 시 144:2, 욥 2:9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맥적으로는 מְנַחֵם과 דָּוִד가 삼하 7장의 나단 선지자의 신탁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사 55장과 함께 두 본문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언약적 헌신을 말하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서 그 내용이 더욱 강조되고 구체화된다. 3절에서 소개되는 “영원한 언약”은 다윗 언약과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다윗에 베풀어진 확실한 은혜와 언약의 변함없는 영속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온 인류로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³⁰⁾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은 어떤 역할과 사명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2. 다윗의 역할

4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였던 다윗을 “증인”(עֵד), “인도자”(מְנַחֵם), “명령자”(מְצַוֵּה)로 삼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베스터만(westermann)은 “증인”이란 의미를 다윗이 정복 전쟁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³¹⁾ 본문에서 사용된 “증인”이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서에서 사용된 몇몇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야 40-55장에서 “증인”이란 용어는 주로 종이란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사야 41장에서부터 시작된 종이란 주제가 43장과 44장에서는 증인이라는 주제와 함께 결합이 되어 종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고 있다.³²⁾ 이사야 43:8-13은 우상 논쟁에 관한 본문이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말한다.

특히 10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들(עֵדֵי), 나의 종(עַבְדֵי)으로 택함을

30) Walter C. Kaiser, Jr., “The Unfailing Kindnesses Promised to David: Isaiah 55.3,” *JTOT* 45 (1989), 95.

31) Claus Westermann, *Isaiah 40-66* (London, SCM Press, 1969), 285.

32) John Goldingay, *The Message of Isaiah 40-55* (New York: t&t Clark, 2005), 199. 사 41:8에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언급한다. 종인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가 전개되면서 43, 44장에서 증인이란 주제와 결합된 것이다.

입었나니”라는 표현을 통해 증인과 종을 결합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들 가운데 유일하며 절대적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선포하는 증인이며 종의 사명을 부여 받았다. 이사야 44:8, 9에서도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증인들의 무지함을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과 대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종과 증인이라는 주제가 이사야 40-55장의 결론 부분인 이사야 55장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고 다윗 언약이란 주제와 결합되어 소개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인 다윗의 역할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다윗의 역할에 관하여 이튼(J. H. Eat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왕의 기본적인 소명은 열방 가운데 야웨의 이름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것”이다.³³⁾ 그는 또한 시편의 여러 제왕시 본문들(시 2, 18, 75, 89, 138, 144)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다윗 왕(Davidic king)을 설명하고 있다.³⁴⁾ 이사야 55장은 시편의 여러 제왕시에서 소개하는 증인으로서 왕의 역할과 유사하게 다윗 왕이 열방과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소개한다.³⁵⁾ 다윗은 또한 “만민의 인도자”(מִיְמֵי לְיָגִיד)로 불린다. “인도자”(יְגִיד)란 용어는 사무엘상 13:14에서는 다윗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יְגִיד עַל־עַמּוֹ)로 사무엘하 7:8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יְגִיד עַל־עַמִּי עַל־יִשְׂרָאֵל)로 삼았다고 묘사한다(삼상 25:30; 삼하 5:2; 6:21). 선지자는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하여 “하나님께 지명된 지도자 다윗의 역할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열방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인도자”는 “증인”과 평행구를 이루며 ‘선포하는 자 또는 공포하는 자’라는 뉘앙스 역시 담고 있다.³⁶⁾ 다윗의

33) J. H. Eaton, “The King as God’s Witness,” *ASTI* 7 (1970): 29.

34) Eaton, “The King as God’s Witness,” *ASTI* 7 (1970): 27-36.

35) Richard J. Clifford, “Isaiah 55: Invitation to a Feast,” in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 N.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ed. C.L. Meyers and M. O’Connor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3), 32.

36) 참조 사 40:21에서는 יְגִיד(말하다. 선언하다)가 호괄형으로 사용되었다. “너희가 듣지

역할로 “명령자”란 단어는 피엘 분사형으로 어떤 직책에 관한 용어라기보다는 동사적인 뉘앙스가 강하여 권위가 있는 왕의 목소리를 의미하는 듯하다.³⁷⁾ 아무튼 55장에서 제시하는 다윗 언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전파하는 증인의 직임과 리더십의 역할을 받은 자로 소개되고 있다.

2.2.3. 다윗 언약의 수혜자

3절에서 소개된 다윗 언약은 누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첸트리(Peter J. Gentry)는 3절의 $\text{וְיָדָוּ$ 를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하면서 다윗 언약은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의 충성되고 순종적인 행동에 의해 성취가 된다고 주장한다.³⁸⁾ 오스왈트도 본문에 나타난 다윗 언약을 메시아적 삶과 사역을 통한 새언약의 문맥에 위치시키면서 메시아의 순종적 행동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언약적 축복에 참여한다고 설명한다.³⁹⁾ 이러한 주장에 반해 델리취(F. Delitzsch)는 다윗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메시아적 적용을 하는 것은 거부한다.⁴⁰⁾ 델리취의 주장과 같이 3절의 다윗 언약을 메시아와 새언약으로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다윗 계열의 왕의 통치 회복이나 새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윗 언약의 수혜자는 종들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누구든지 순종을 통하여 다윗 언약에 참여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즉 다윗 언약의 대중화(democratization)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되는 증거들은 이러한 주장을 더욱 뒷받침한다.

못하였느냐? (לֹא הָיָה לְדָוִד)”

37) J. Alec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3), 455.

38) Gentry, “Rethinking the *sure mercies of David* in Isaiah 55:3,” *WTJ* 69 (2007), 298.

39)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438.

40) Franz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1949), 355.

첫째, 이사야 55장의 장르와 문맥이다. 이사야 55장은 초청, 약속에 관한 장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삶으로 초청하고 순종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전체 문맥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1-5절, 6-13절). 블렌킨소프(Joseph Blenkinsopp)은 본문의 초청 장르를 지혜의 잔치로 초대하는 잠언 9:1-6의 여성 지혜(the Lady Wisdom)와 연결시켜 설명한다.⁴¹⁾ 또한 브르그만(Walter Brueggemann)은 들으라(**שמעו**), 돌아오라(**שובו**)는 명령은 신명기적 언어와 신학적 주제와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⁴²⁾ 선지자는 초청 장르와 신명기의 신학적 주제를 다윗 언약과 결합시켜 초청과 약속이라는 장르를 산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율법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언약적 축복이 약속된다.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 것이며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약속된다. 다윗 언약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 것이다. 본문의 문맥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다윗 언약을 통해 제시하고 다윗 언약의 대중화(democratization)라는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둘째, 5절은 다윗 언약의 수혜자들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5절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를 통해 4절에서 만민에게 증인, 인도자, 명령자가 되는 다윗의 역할이 이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이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4절과 5절은 둘 다 **קָמוּ**로 시작하고 있고 4절은 완료형으로 5절은 미완료형으로 구성되어 과거 다윗의 역할과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미래 역할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 다윗의 역할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이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들에게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41) Joseph Blenkinsopp, *Isaiah 40-55* (New York: Doubleday, 2002), 369.

42) Walter Brueggemann, “Isaiah 55 and Deuteronomic Theology,” *ZAW* 80 (1969), 191-203. 브르그만은 이사야 55장에 나타난 신명기적 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회개의 초청,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 언약의 갱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셋째, 여호와와의 종들이 다윗 언약의 수혜자들이 된다. 다윗 언약의 대중화는 이사야 54:17에서 소개된 “여호와와의 종들(תַּיְדִיבֵי יְהוָה)”에 의해 이미 예견되었다. 열방의 빛과 증인이 되는 역할은 종인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것이었으나 (41:9; 42:1-7; 43:9-13; 44:1-8) 이스라엘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42:18-24). 하지만 고난의 종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의 대리적 고난을 통하여 그의 사역의 수혜자들을 산출하게 되며 이들이 다윗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52:15).⁴³⁾ 고난의 종의 사역의 수혜자들이 바로 여호와와의 종들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순종하고 돌이키면 종들이 되고 다윗 언약에 참여하여 그의 역할을 물려받게 된다. 나아가 이사야 56장에서 여호와와의 종들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들로 소개되고 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고자들까지도 종들이 된다. 고난의 종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여호와와의 종들이 산출되고 그 범위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과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인 다윗 언약의 대중화가 이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3.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의 다윗 언약의 유사성과 차이점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은 동일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언어적이며 주제적인 유사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43) 이희성, “이사야 40-66장에 나타난 종들-종의 주제 변이를 중심으로” 『Canon& Culture』 3 (2009), 211-228; Christopher R. Seitz, “The Book of Isaiah 40-66: Inre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The New Interpreter's Bible*, eds. Leander E. Keck, et al., vol. 6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481; 광철호, “이사야 55:1-5에 나타난 다윗 언약의 대중화와 그것이 그리스도인/교회에 가지는 함의,” 『성침논단』 7 (2010), 16.

3.1. 유사성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 두 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이사야 55:3, 4의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만민에게 증인”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이사야 55:3, 4에서 소개되는 다윗언약과 관련된 이와 같은 용어들은 시편 89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절에서 “여호와와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3절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5, 9절 “주의 성실”; 14절 “인자와 진실함”; 20절 “내 종 다윗”;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 26절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절 “나의 인자함”, “나의 언약”; 34절 “나의 인자”, “나의 성실”; 34절 “내 언약”; 39절 “주의 종의 언약”; 49절 “주의 성실하심,”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 등이 있다.

시편 89편에서는 다윗 언약과 관련하여 풍성한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윗 언약의 무조건적인 측면과 지속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강조하기 위해 “영원”(עֹלָם)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2, 3, 5, 29, 37, 38, 53). 특히 이사야 55:3b도 언약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원한 언약”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사야 55:4에서 사용된 “증인”(עֵד)이란 용어는 시편 89편에서 다윗 후손의 왕위의 견고함을 묘사하기 위해 “궁창의 확실한 증인(עֵד)인 달” 같이 영원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은 다윗 언약의 무조건성과 지속성이란 차원에서 서로 주제적이며 언어적인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두 본문은 언약의 조건적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시편 89편에서 만일 다윗의 후손들이 여호와와 법(חֻקֵי)을 버리고 규례(צִוְיֹת)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율례(חֻקֵי)를 깨트리며 계명(חֻמֵּם)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죄악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기지는 신명 기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다윗 언약의 조건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이사야

55장도 신명기의 신학적 주제를 다윗 언약과 결합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 즉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

두 본문에 나타난 다윗 언약의 무조건적 차원과 조건적 차원은 하나님의 언약적 헌신과 약속을 강조함과 동시에 언약에 참여하는 자의 의무와 순종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대한 이상을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사야 55장에 소개된 다윗 언약도 사무엘하 7장에서 소개된 다윗 언약에 관한 주제를 언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두 본문은 이스라엘의 동일한 언약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다윗 언약의 지속성과 조건성을 각각 소개하고 있으며 다윗 언약에 대한 회상은 언약에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⁴⁴⁾ 그렇다면 이 두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의 상이점은 무엇인가?

3.2. 차이점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다윗 언약은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시편 89편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 파괴로 인한 탄식과 탄원에 목적이 있다.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의 수혜자인 다윗을 “내가 택한 자”(אֲנִי־בָחַרְתִּי, 3절), “택함을 받은 자”(אֲנִי־בָחַרְתִּי, 19절), “내 종”(אֲנִי־בָחַרְתִּי, 3, 20절), “주의 종”(אֲנִי־בָחַרְתִּי, 39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אֲנִי־בָחַרְתִּי, 20, 38, 51절)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항상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다윗 언약을 회상하는 이유는 그 확실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

44) O. Eissfeldt, “The Promises of Grace to David in Isaiah 55:1-5,” *Israel's Prophetic Heritage: Essays in Honor of James Muilenburg*, eds., B. W. Anderson and W. Harrelson (New York: Harper, 1962), 199.

다. 결코 파기 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다윗 언약이 파기되어 그로 인하여 탄식하며 언약 회복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 왕조가 열방의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에 호소하여 다윗 언약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사야 55장에서는 다윗 언약을 사용한 저자의 의도가 좀 다르다. 언약의 주체인 다윗을 묘사할 때 시편 89편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시편 89편과 같이 다윗 왕조의 통치나 그의 후손들의 왕위 회복을 기대하거나 예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사야 55장의 주된 관심사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즉 다윗 언약의 대중화이다. 다윗이 만민의 증인, 인도자, 명령자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이스펠트(O. Eissfelt)가 지적했듯이 시편 89편에서 다윗과 관련해서 사용된 “나의 택함을 받은 자”(בְּחֵרָתִי), “나의 종”(עַבְדִּי)과 같은 표현이 이사야 40-55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을 일컬어 사용되고 있다.⁴⁵⁾ 이사야 41:8에서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42:1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 43:10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43:20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44: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44:2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 44:21 “야곱아 이스라엘아 ... 너는 내 종이니라” 45:4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과 같은 표현들이 그러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자”, “종”으로 명명하면서 그들에게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맹인이고 귀머거리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42:19, 43:1-7). 이사야 선지자의 주된 관심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있다. 이러한 주제의 흐름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의 사역을

45) Eissfelt, “The Promises of Grace to David in Isaiah 55:1-5,” 204.

통한 회복을 거쳐 54, 55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시야 40-55장의 결론 부인 55장에서는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다윗 언약의 수혜자가 되고 다윗의 역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다윗 언약의 대중화와 전이가 일어난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는 자신의 신학적 목적에 따라 다윗 언약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시편 89편에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와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면서 다윗 언약 파기에 대한 탄식을 말하고 있으나 이시야 55장은 다윗과 맺은 확실한 언약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되는 대중화를 소개하고 있다.

4. 결론

시편 89편과 이시야 55장은 모두 사무엘하 7장에서 제시되는 다윗 언약에 기반을 두고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시편 89편은 사무엘하 7장에 소개된 다윗 언약의 다양한 주제들을 새롭고 더욱 풍성하게 전개시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확실성을 다양한 용어로 묘사하면서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룬다. 시편 89편에 소개된 다윗 언약의 속성은 하나님의 언약적 헌신과 맹세에 초점을 맞추며 언약의 무조건적인 속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언약에 참여하는 다윗 계열의 왕들의 율법 준수를 통한 조건적 언약 관계를 조화롭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다윗 언약의 파기라는 현실 앞에서 탄식하면서 언약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시야 55장 역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주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시편 89편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그 주제를 새롭게 전개시키고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회개의 삶으로 초청하고 그에 대한 약속이란

주제가 전체 문맥에서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돌이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인 다윗 언약을 소개하고 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신한 은혜와 그에게 부여하신 증인, 인도자, 명령자의 역할이 다윗 왕조가 아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대중화됨을 제시하고 있다. 다윗 언약을 제시하는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다윗 언약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윗 언약의 영원성과 지속성이다. 하지만 시편 89편에서 제시된 다윗 언약의 파기에 대한 탄식과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사야 55장에서 들을 수 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하며 지속적이다. 하지만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순종 한다면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시편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사명을 부여 받은 자이다. 그런데 이사야 40-55장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빛이 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아와 순종하고 그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다윗 언약의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 역할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하여 이루셨고 그 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사명을 부여 받게 된다.⁴⁶⁾

46) H. G. M. Williamson, *Variations on a Theme: King, Messiah and Servant in the Book of Isaiah* (Cumbria: Paternoster Press, 1998), 122-147.

<주요어>

시편 89편, 이사야 55장, 다윗언약, 무조건적 언약, 조건적 언약, 언약의 대중화, 종들

<Key Words>

Psalm 89, Isaiah 55, Davidic covenant, conditional covenant, unconditional covenant, democratization of covenant, servants

* 접수일 2016년 3월 21일, 수정일 2016년 4월 3일, 게재 확정일 2016년 4월 15일

참고문헌

- 곽철호, “이사야 55:1-5에 나타난 다윗 언약의 대중화와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가지는 함의,” 『성침논단』 7 (2010), 5-31.
- 김정우, “시편 89편의 정경적 해석,” 『신학지남』 225 (1990), 6-32.
- _____, “개혁주의 정경적 성경 해석학에 대한 제안,” 『신학지남』 300 (2009), 80-99.
- _____, “시편 89편의 성경신학적 기여 - 무조건적 언약 속에 있는 조건성의 수수께끼,” 『신학지남』 57 (1990), 11-53.
- _____, “시편 89편의 정경적 해석,” 『신학지남』 57 (1990), 6-32.
- _____, “시편 89:29-38 주석: 무조건적 언약의 현장,” 『신학지남』 58 (1991), 8-31.
- _____, 『시편주석 II』,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9.
- 김회권,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 『구약논단』 28 (2008), 107-127.
-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32 (2009), 83-110.
- 이희성, “이사야 40-66장에 나타난 종들-종의 주제 변이를 중심으로,” 『Canon&Culture』 3 (2009), 211-39.
- Bakhtin, Mikhail M., *The Dialogic Imagination*, ed. Michael Holquist, Austin, Tex: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 Berlin, Adel.,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2;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이희성 역, 서울: 그리스, 2012.
- Beuken, W. A. M., “Isa. 55:3-5: The Reinterpretation of David,” *Bijdragen: Tijdschrift voor Filosofie en Theologie* 35 (1974), 49-64.
- Blenkinsopp, Joseph., *Isaiah 40-55*, New York: Doubleday, 2002.
- Broyles, Craig C., “Traditions, Intertextuality, and Canon,”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 A guide for Exegesis*. ed., Graig C. Broyl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Broyles, Craig C., *Psalm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 Brueggemann, Walter., "Isaiah 55 and Deuteronomic Theolog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0 (1969), 191-203.
- Caquot, A., "Les 'Graces de David': A Propos d'Isaie 55/3b," *Sem* 15 (1965), 45-59.
- Clifford, Richard J., "Isaiah 55: Invitation to a Feast,"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 N.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eds., C. L. Meyers and M. O'Connor,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3, 27-32.
- Delitzsch, Franz,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Michigan: Erdmans Publishing, 1949.
- Eaton, J. H., "The King as God's Witness," *Annual of Swedish Theological Institute in Jerusalem* 7 (1970), 25-40.
- Eissfeldt, O., "The Promises of Grace to David in Isaiah 55:1-5," *Israel's Prophetic Heritage: Essays in Honor of James Muilenburg*, eds., B. W. Anderson and W. Harrelson, New York: Harper, 1962, 196-207.
- Gentry, Peter J., "Rethinking the "sure mercies of David" in Isaiah 55: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9 (2007), 279-304.
- Goldingay, John, *The Message of Isaiah 40-55*, New York: T&T Clark, 2005.
- Goldingay, John, *Psalms 42-89*,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Hess, Richard, "דָּוִד,"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I*, ed., Willem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427-433.
- Jin Kyu, Kim, "From a Royal Psalm to an Eschatological Psalm: The Changing Genre of Ps 110 in the Context of the Psalter," *Korean Reformed Journal* 19 (2011), 9-43.
- Jung-Woo, Kim, "Psalm 89: Its Biblical-Theological Contribution to the Presence of Law within the Unconditional Covenant," Ph.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89.
- Kaiser, Walter C. Jr., "The Unfailing Kindnesses Promised to David: Isaiah 55.3," *Journal of Study of the Old Testament* 45 (1989), 91-98.

- McCann, Clinto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Sheffield: JSOT Press, 1993.
- Motyer, J. Alec, *The Prophecy of Isaiah*.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3.
- Westermann, Claus, *Isaiah 40-66*, London, SCM Press, 1969.
- Whybray, Norman,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Williamson, H. G. M., “The Sure Mercies of David?: Subjective or Objective Genitive?” *Journal of Semitic Studies* 23 (1978), 31-49.
- _____, *Variations on a Theme: King, Messiah and Servant in the Book of Isaiah*, Cumbria: Paternoster Press, 1998.
- Wilson, Gerald Henry, “Evidence of Editorial Divisions in the Hebrew Psalter.” *Vetus Testamentum* 34 (1984), 336-52.
- _____,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 _____,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ed., J. Clinton McCan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Sheffield: JSOT Press, 1993, 72-82.
-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98.
- Robertson, Palmer O.,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Schultz, Richard L., “Intertextuality, Canon, and “Undecidability,”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0:1 (2010), 19-38.
- _____, “The Book of Isaiah 40-66: Inre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The New Interpreter’s Bible*, eds., Leander E. Keck et al., vol. 6,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 Tate, Marvin E., *Psalms 51-100*, Dallas: Word Books, 1990.

<초록>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의 상관성 연구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이희성

(충신대학교)

본 논문은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 둘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각각의 다양한 신학적 목소리를 듣는데 목적이 있다. 시편 89편과 이사야 55장은 다윗 언약의 무조건성과 조건성 차원에서 서로 주제적이며 언어적인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두 본문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헌신과 약속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윗 언약에 참여하는 자의 의무와 순종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이 파기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에 호소하며 다윗 언약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이사야 55장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사야 55장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 종들, 곧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다윗 언약의 대중화와 전이가 본문의 주된 목적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아와 순종하고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다윗 언약의 수혜자가 되고 증인으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Abstract>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salm 89 and Isaiah 55:**

with special Reflection to the Davidic Covenant

Prof. Hee Sung Lee
(Chongshin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avidic covenant found in Psalm 89 and Isaiah 55 and to understand the multiplicity of theological voices by observ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exts. Psalm 89 and Isaiah 55 demonstrate the thematic and linguistic similarities in terms of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aspects of the Davidic covenant. These texts emphasize God's covenantal commitment and promises, and the duty and obedience of participants of the covenant. Psalm 89, however, appeals to God's covenantal grace and anticipates the restoration of the Davidic covenant in the case of breach of the covenant. On the other hand, Isaiah 55 does not anticipate the restoration of Davidic dynasty; rather, it is concerned about people's response to the invitation and their obedient lifestyle. The main focus of this passage is the democratization of the Davidic covenant to those who obey God's commandments. If people enter into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live an obedient life, they will become the recipient of the Davidic covenant and play their role as God's witness.

